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서 살아보세요”

고창군 ‘4도3촌 살이’ 문예공동체사업
도시 문화예술인과 농촌 주민 교류
목공예 작품·책 만들기 등 프로그램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보세요”
고창군은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란 주제로 ‘4도 3촌 살이’ 농촌 문화예술공동체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안정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신림면 소재 ‘책이 있는 풍경’에서 공동체의 거점공간을 활용한 대도시 문화예술인과 농촌 마을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이다.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가가 고창에서 살아보고, 한 공간에서 마을주민과 마주하며 작품활동을 같이 하고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도농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고창읍 책이있는 풍경 대표는 “농촌마을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고 생활환경·세대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거점공간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리는 목공예 분야와 글짓기 분야의 예술가를 초청해 마을주민과 ‘생활밀착형 목공예 작품 만들기’와 ‘우리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농촌주민에게 SNS 활용 교육, 건강체조 등 도·농 교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진행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촌문제는 농촌에서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농촌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거듭나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등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감성·힐링 관광시설로 거듭난다

전북도 동부권개발사업 선정
시, 2025년까지 60억 들여 정원 조성

남원 허브산업의 중심지 ‘지리산 허브밸리’가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감성형 정원으로 거듭난다.
남원시는 ‘전북도 동부권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을 확정하고 자연과 감성을 주제로 한 정원과 경관, 동화 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리산허브밸리는 그동안 제품과 산업 중심의 허브산업에서 벗어나 감성과 힐링을 주제로 하는 관광형 매력시설로의 전략적 전환을 꾀한다.
오는 2025년까지 5개년 간 6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의 조성물을 기반으로 하되 지리산 본래의 자연미에 집중하고 감성적인 조경미를 융합한다.
기존의 조성된 시설을 기반으로 하되 지리산 자연이 갖고 있는 본래 그대로의 자연미에 집중하고 감성적인 조경미와 융합해 자연의 평화와 감성이 펼쳐지는 자연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가 전북도 동부권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감성형 정원으로 거듭난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감성적 자연정원 조성을 위해 유망 감성 조경가와 실내 건축가가 참여하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다.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가 시설의 방향과 설계, 시공, 운영, 관리, 조정 등을 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민간협업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눈길 끄는 재활용 정책 2세

폐건전지 모아오면 종량제봉투 드립니다

군산시 40개, 10 l 봉투 바꿔줘
아파트 47곳에 폐건전지 수거함



군산시는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체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폐건전지 40개를 모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0 l 짜리 쓰레기종량제봉투 1개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군산시는 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600가구 이상 공동주택 47곳에 폐건전지 수거함(사진) 66개를 비치하기로 했다.
또 동지역에 신규로 설치한 의류수거함 옆면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부착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주택단지에서도 폐건전지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폐건전지는 그냥 버리면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지만 분리배출하면 철·아연·니켈 등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조금 귀찮더라도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 종량제봉투 교환

익산시 이달부터 5개동 시범시행
소독작업후 상가 등에 무료 제공

익산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아이스팩(ICE PACK)을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범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 5개를 모아 가져오면 20 l 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1개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우선 함열읍, 동산동, 모현동, 영등1동, 삼성동 등 5개 행정복지센터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92곳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에서는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지는 못한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과 소독작업을 한 뒤 시내 상가와 업체 등 필요한 곳에 무료 제공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효과가 크면 8월 이후에는 이 사업을 모든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스팩은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리는데, 무분별하게 일반 쓰레기와 섞여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해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10개팀 100만원씩 지원

남원시는 청년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팀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남원지역에서 생활하는 만 19~39세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10개 팀 내외를 선정해 팀별로 10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강사

비 등을 준다. 다만, 정치, 종교, 영리 목적의 동아리는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남원시 기획실로 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동학농민혁명 유물 구매합니다

고문서·고서적·삽화·사진 등
기념재단, 4월 9일까지 접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은 사라지거나 훼손되기 쉬운 민간소장 유물을 공개 구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집된 유물과 자료는 학술연구와 전시,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수집대상 유물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삽화·사진 등 소장 가치가 높은 유물이며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도

해당된다.
유물 및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도공품이나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재단 양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과 함께 4월9일까지 이메일(ksy8190@1894.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매할 유물은 향후 자료 번역 및 자료집 발간 등 학술 연구와 전시, 교육에 활용하고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대규모 공공개발지역 3곳
익산시, 투기행위 특별 조사

익산시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3개 공공택지의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LH가 시행하는 소라산공원개발지역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부송4지구 등이다.
익산시는 쪼개기 매입, 과도한 대출이 포함된 토지 매입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투기가 의심되면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민간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행위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nong Solar Energy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